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37>

JCCT 2019-2-5

문학과 드라마의 통섭 양상 연구  
-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 <신사의 품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operative Patterns of Literature and Drama  
-Focused on <Dokebi, The Lonely and Great God>, <Gentlemen's Dignity>**

손미영

**Son, Mi-young**

**요약** 2000년대 이후의 한국 드라마는 새로운 서사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국 드라마에는 다양한 양태의 혼종과 혼합, 그리고 변형의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10년대에 대중적으로 성공한 드라마를 통해 문학과 드라마의 통섭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김은숙 작가의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와 <신사의 품격>을 통해 드라마 내에서 문학 텍스트가 어떻게 활용되며, 이로써 어떠한 서사적, 영상적 효과를 얻어내는가를 세밀히 검토한다. 이 두 편의 드라마는 한국 내에서 대중적으로 성공한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를 드라마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학과 드라마 통섭을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문학이 드라마와 통섭하는 주요한 장면을 해석하고, 그 의의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드라마라는 영상 텍스트가 문자 텍스트의 한 부분을 차용하고, 그 물질성으로서의 '책'을 활용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해석한다. 이로써 다양한 장르가 하나의 영상 텍스트 내에 혼합되고 병치되는 양상과 그 효과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주요어** : 문학, 시, 드라마, <도깨비> <신사의 품격>, 통섭, 융합

**Abstract** Korean dramas since the 2000s are continuously experimenting with new narrative possibilities. Especially in the recent Korean drama, various modes of hybridization, mixing, and transformation are attemp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sensus of literature and drama through popular drama in 2010.

This study examines how literary texts are utilized in dramas through the use of Kim Eun-sook's lonely and glorious god-goblin and gentleman's dignity, and how these narrative and visual effects are gained. These two dramas are not only popular drama in Korea but als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nterpreting literature and drama consciousness because they actively utilize literary texts in drama. This is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he main scene in which literature and the drama conspire, and grasping its significance. Through this study, we analyze the process of borrowing the part of the text of the text, drama, and taking the effect of storytelling by using 'book' as its materiality. This will confirm the way in which various genres are mixed and juxtaposed in one video text and its effects.

**Key words** : Literature, Poem, Drama, Korean Drama, <Dokebi>, <Gentleman's Dignity>, convergence

\*정회원,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 (주저자)  
접수일: 2018년 10월 17일, 수정완료일: 2018년 23월 6일  
게재확정일: 2019년 1월 10일

Received: October 17, 2018 / Revised: December 06, 2018

Accepted: January 10, 2019

\*Corresponding Author: myshon@kw.ac.kr

Dept. of Ingenium, Kwang woon Univ, Korea

## 1. 서론

현대는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들이 서로 통섭하는 시대이다. 시나 소설을 비롯하여 웹툰 등의 영상화가 혼란이 되었을 만큼 매체들 간의 서사적 통섭은 매우 빈번한 시대에 이르렀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한국 드라마는 새로운 서사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한국 드라마에는 다양한 양태의 혼종과 혼합, 그리고 변형의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10년대에 대중적으로 성공한 드라마를 통해 문학과 드라마의 통섭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주요한 해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김은숙 작가가 발표한 두 편의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2017)와 <신사의 품격>(2012)이다. 이 두 편의 드라마는 한국 내에서 대중적으로 성공한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호평을 얻어낸 바 있다.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이하 <도깨비>)는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에 걸쳐 방영되며, 케이블 드라마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신사의 품격>은 40대 초반의 남성들을 중심인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얻어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편의 드라마는 서사적 완성도와 함께 문학 텍스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들의 일부를 차용하고 변용하고, 활용하는 드라마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이 대상이 된 바 있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도깨비'의 캐릭터 형상화[1]~[5]나 전통문화의 변용 양상과 스토리텔링의 효과[6]~[8]를 살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문학적 관점을 통해 서사적 완결성을 읽어낸 연구[9]가 있다. 이외에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작법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드라마 <신사의 품격>을 세밀히 읽어낸 연구[10]가 주목할 만하다. 이제는 캐릭터나 드라마 서사 분석에서 더 나아가 김은숙 작가가 문학 텍스트를 차용함으로써 얻어내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논의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은숙 작가의 두 드라마를 통하여 드라마 내에서 문학 텍스트가 활용되고, 이로써 어떠한 서사적, 영상 효과를 얻어내는가를 세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언급한대로 대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드라마이자, 문학 텍스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드라마인 <도깨비>와 <신사의 품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 작업은 문학 텍스트가 드라마의 요소와 통섭하는 주요한 장면들을 해석한다. 이 검토를 통하여 드라마라는 미디어 텍스트가 문학 텍스트의 일부를 차용하고,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형식의 장르가 하나의 장면에 혼합되고 병치되는 흥미로운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

## II. 문학의 통섭 유형별 양상 연구

### 1. 시와 드라마의 내러티브

시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 속에서 보편과 근원을 발견하는 예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언어적 제작을 통해 본질을 깨닫게 하는 시의 '쾌'는\* 이러한 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한 데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11]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시는 순간적 감정을 통해 두 등장인물의 감정이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도깨비'에게 여주인공 '은택'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 순간에 파악하게 하는 한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김인육, 「사랑의 물리학」[12]

\*

<도깨비>의 주인공인 도깨비 김신(공유 분)이 지은탁(김고은 분)에 대한 감정을 자각하는 순간에 등장한 위의 시는, 드라마의 성공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얻어낸 시이기도 하다. 2012년에 발간된 시집 『잘가라, 여우』에 실려 있던 이 시는 본래, 김인육 시인의 시세계를 특징짓는 시는 아니었다. 문효치 시인의 추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김인육 시인의 시세계는 「짜통 우씨」처럼 은근한 해학과 풍자가 그 주요한 특징인 것으로 평가되어왔다.[13] 김인육 시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던 「짜통 우씨」는 가짜 명품 가방을 만드는 ‘우씨’의 이야기를 통해 가짜를 만들면서도 진심을 담아내는 역설의 장면과 가난한 수제 가방사에 대한 연민이 드러난 수작이다.

이에 비해 위의 시 「사랑의 물리학」은 아름다운 시어와 낭만적인 묘사를 제외하면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시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위험하다. 그러나 드라마 <도깨비> 이후, 김인육 시인은 이른바 ‘사랑의 물리학의 시인’이 되었다. 2018년 문예중앙에서 발간된 새로운 시집의 제목이 『사랑의 물리학』인 것 또한 드라마가 한 시인의 문학적 특징을 어떻게 변모시키는가에 관한 흥미로운 참조점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 시는 어떻게 수용자들의 반향을 이끌어낸 것인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 시 「사랑의 물리학」이 드라마 텍스트 안에서 노출되었던 장면을 검토해보자.

S#49. 캐나다/ 분수대 있는 거리 (낮)

부서지는 햇빛, 사락사락 넘어가는 책장, 바람에 흔들리는 앞 머리칼,

길거리 어딘가 테이블에 느슨하게 앉아 책 보고 있는 도깨비다.

중간 중간에 은탁이 필사한 것도 보인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 시선 고정된 도깨빈데, 그때,

은탁E ..... 아저씨!

보면, 길 건너 신호등 아래서 은탁 손 방방 흔들며 환히 웃고 있다.

팔랑, 도깨비가 들고 있는 책 페이지 귀퉁이 바람에 흔들린다.

책, 비추면 시 한편 적혀있다. 제목 <사랑의 물리학>이다.

도깨비, 길 사이로 지나치는 자동차들에 은탁이 가려질 때마다 고개를 들어 괜히 은탁을 찾게 된다.

도깨비NA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그 때, 신호등 초록불로 바뀌고 은탁, 도깨비만을 보면서 뛰듯이 걸음을 내딛는데..

은탁의 발이 닿는 순간, 횡단보도에 있는 흰 선들이 빨간색으로 바뀐다. 마치 레드카펫처럼.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흰색 선으로 보이는 횡단보도고, 은탁의 눈에만 빨간색으로 보인다.

은탁, 잠시 놀래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흰 선들 밟는다. 여지없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도깨비NA .....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은탁, 도깨비가 해주는 것이구나.. 도깨비 보며 까르르 웃고.

도깨비, 그런 은탁 따라 저도 모르게 환히 웃는데..

도깨비NA ..... 순간, 나는 ..... 뉴턴의 사과처럼 .....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화창하게 부서지는 햇살 받으며 점차 가까워지는 은탁인데...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은탁 보다가, 순간, 도깨비의 눈빛, 탁 굳는다.

>>인서트 플래시백.

900년 전 들판에 버려져 하루 중 가장 화창했던 오시의 햇빛에 생이 부서지던 기억 떠올리고..

/다시, 현재.

그 날의 햇살처럼 화창한 햇살 속에 은탁이 종종 뛰어와 선다.

은탁의 머리 위로 부서지는 볼 수 없이 환한 햇빛들.

-드라마 <도깨비> 4회 대본

위의 씬은 캐나다 퀘벡의 아름다운 거리 풍경과 함께 천진한 소녀처럼 장난치듯 색이 변하는 횡단보도를 뛰는 여주인공의 모습이 남자주인공의 비극적이었던 과거와 교차 편집된 이 씬은 드라마 <도깨비>에서 가장 낭만적인 장면으로 손꼽힌다. 때문에 드라마 <도깨비>의 명 장면 혹은 명대사를 꼽을 때마다 결코 빠진 적이 없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때 김인육의 시 「사랑의 물리학」은 남자주인공인 ‘도깨비’의 심리를 대변한다. 여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선과 처참했던 임종의 순간이 교차 편집됨으로써

현재의 '도깨비'가 겪는 심경의 변화를 더욱 극적인 것으로 이끌어낸다. 무엇보다도 그의 심리를 대변하는 김인욱의 시가 인물의 독백(내레이션)으로 등장함으로써 인물이 그 스스로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욱 세련되고도 절절한 감정적 고조를 효과를 획득한다. 만약 인물이 직접 자신의 감정을 대사로 연기하였다면, 이 드라마의 백미로 손꼽히는 위의 장면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직접적인 설명이 아닌 일종의 간접 화법을 위한 한 장치로 김인욱의 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용한 김인욱의 시 외에도 이 드라마에서 시 텍스트들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등장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요 활용된다. 예컨대 '도깨비'가 김을 뺏고 허무를 헤맬 때에 활용된 내레이션은 드라마 속에서 은타이 건넌 책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 지도 몰라』[14]에 수록되어 있는 오스텝스 블루의 시 「사막」의 한 부분이다. 흰 눈으로 둘러싸인 허무의 세계를 홀로 걸어가는 '도깨비'의 모습은 시 「사막」의 일부와 겹치며 그가 걷고 있는 공간이 눈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막과도 같은 공간임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드라마 속에서 이 시를 읊는 인물은 '도깨비' 본인이 아닌 제3의 인물로 선택되어 있는데, 이는 '도깨비'가 놓여있는 공간의 광막함과 함께 그 내부의 고독감까지도 극대화하여 전달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김인욱의 시는 이후에도 대사로 변주되어 <도깨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드라마 내에서 두 주인공이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도깨비'는 “백년을 살아 어느 날 첫사랑이었다, 고백할 수 있기를”이라는 대사를 통해 「사랑의 물리학」의 마지막 행을 변주한다. 이 대사는 '도깨비'가 여주인공에게 느끼는 감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한 문장이다. 그러므로 드라마 <도깨비>에서 이 마지막 문장인 “첫사랑이었다”는 지속적으로 변형, 변주되며 두 남녀 주인공의 관계 진전을 암시하는 한편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두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중간 유입 시청자가 존재하는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상, 여주인공을 향한 남자 주인공의 감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위의 문장은 예고편과 프리뷰를 비롯한 다양한 요약 장면들 속에서 활용/재활용됨으로써 드라마가 구성되고, 수용되며, 이를 향유하는 과정에 시 「사랑의 물리학」

을 지속적으로 통섭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위시가 실려 있는 시 모음집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라는 책이 두 사람의 인연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이자, 소소한 에피소드를 유발한다는 점 또한 활자화된 '시'라는 텍스트가 그 물질성으로서 드라마의 서사와 소통하는 한 예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들을 통해 드라마 <도깨비>가 시의 일부 혹은 전문을 직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을 더욱 폭넓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순간의 포착을 통해 진폭이 넓은 감정과 보편의 진리를 포착하는 예술 장르임인 시가 드라마에 활용됨으로써, 인물들의 대사는 흔한 사랑의 감정 묘사가 아닌 인간의 고뇌와 본질적 문제에 가 닿는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 시가 다양한 씬들에서 활용되고는 있으나 무엇보다도 색이 바뀌는 횡단보도라든가 설원과도 같은 비현실적 장소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은, 이 장면들이 지닌 환상적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데에 시 텍스트가 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드라마 <도깨비>가 보여주는 시와의 통섭 양상은 서로 다른 장르의 통섭을 통해 자칫 저속하거나 전형적인 통속성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드라마의 참신성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판타지적 장면까지도 설득력을 얻게 하는 데에까지 이른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준다.

## 2. 소설과 '책', 그리고 드라마의 내러티브

김은숙 드라마 <도깨비>가 보여주는 시와 드라마의 통섭은 사실 2012년 SBS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부터 시도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은 출판사 문학동네와의 상업적 관계로 인하여 다수의 문학동네 출판물을 드라마 내에서 활용한 바 있다. 당시에는 출간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간인 신경숙의 『모르는 여인들』을 비롯하여, 같은 작가의 장편소설인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김연수의 장편소설 『윈터보이』, 그리고 김훈의 장편소설 『칼의 노래』 등 다수의 문학동네 출판 서적이 드라마 내에 등장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문학 텍스트가 드라마의 서사에 관여하는 가장 흥미로운 씬은 등장인물 중 하나인 메아리와 최윤의 밤거리 에피소드에 있다. 이 드라마는 10

회차 초반부터 두 인물이 아닌, 이수를 통해 신경숙의 장편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한다. 그리고 마침내 두 등장인물, 최윤과 메아리의 감정 표현과 그 변화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에서 이 소설이 활용된다. 이 소설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인 ‘내가 갈까’와 ‘내가 갈게’는 두 등장인물의 감정 변모 양상을 드러내는 주요한 대사로 활용되며, 최윤(김민중 분)의 감정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울리는 메아리(윤진이 분)이 거는 전화의 장면은 자연스럽게 신경숙의 소설 제목과 연결된다. 다음의 두 장면을 보자.

S#28. 도진 아파트/ 거실. 밤.

식탁에서 주스 따르는 윤, 가웃하며 거실 쪽 보는..

보면, 이수 소파에 앉아 누군갈 찾는 눈치.

최윤 (주스 쟁반 들고 이수 쪽으로 와 잔 건네며)  
드세요. 도진인 아직인데.

이수 (!) 아우 아뇨! 김도진씨 보러 온 거 아니구요,  
서점 갔다가

(가방에서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꺼내 내밀며) 최변호사님 생각나서 책 한 권 샀거든요.

최윤 아.. 고마워요. (책 받아 들며) 서점 가본 지가 언젠 지도 모르겠네요.

이수 (건성으로) 네에.. (하며 슬쩍 집안 살피는데)

최윤 도진이 전화해 볼까요? 지금 어딘지?

이수 (헉!) 아우, 김도진씨 보러 온 거 아니라니까요.

최윤 도진이 보러 온 거 다 티 나는데.

이수 (땀적은.. 머리 긁적...) 그럼, 흠, 지금 어디쯤인지.. 여쭙 봐도 될까요?

최윤 (웃으며) 한 십분? 좀 전에 근처랬거든요.

이수 (농담조) 사악한 의도가 있긴 했지만, 이 책은 진심이에요.

최윤 알죠. 좀 놀라긴 했지만.

이수 왜요?

최윤 저한테도..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자꾸 울리거든요.

이수 (아...) 며칠 전에.. 메아리 많이 울던데... 기다리는데 안 오셨다고..

최윤 (시선은 책 목차에) ..네..

하며 목차 보는 윤이의 눈에, 프롤로그-‘내가.그.쪽.으로.갈.까’와

에필로그-‘내가.그.쪽.으로.갈.게’란 소재목 보인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 10회 대본

이 장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학 텍스트는 신경숙의 장편소설이다. 최윤은 이수(김하늘 분)가 선물한 책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책의 제목처럼, 누군가. 즉, 메아리로부터 걸려온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가 느끼는 복잡한 심경이 이 한 장면에서 표현된다. 이 때 드라마가 장편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벨이 울리고』의 서사나 그 내용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의 ‘책’ 자체가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카메라는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표지와 목차를 ‘비추고’ 있으므로 이 책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속 인물인 최윤의 행보와 이 소설의 소재목들이 겹쳐지면서 시청자들은 이 장편소설의 중심 서사를 어렵잖게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최윤과 메아리가 갈등을 겪는 장면들이 소설의 소재목과 연결됨으로써, 시청자들 또한 자연스럽게 신경숙의 장편소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이 드라마 방영 이후, 이 드라마에 노출되었던 문학 텍스트들의 판매율이 높아진 바 있다. 이 드라마에 열광하였던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책을 읽거나, 혹은 우연히 현실에서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때마다 이 드라마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이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장편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벨이 울리고』는 드라마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동시에 이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마치 정말 존재하는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혼용이 일어난다. 이는 드라마에 등장한 한 권의 문학 텍스트를 드라마 속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환상과도 같은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깨비>와는 달리 주로 소설을 활용하는 <신사의 품격>은 출간된 ‘책’의 이미지와 그 제목 및 소재목을 보여줌으로써 이후 최윤이라는 인물의 행동과 감정 변화를 예견케 하는 효과 또한 노리고 있다. 위의 장면 이후에 등장하는 다음 장면을 보자.

S#32. 대로가. 밤.

(중략)

메아리, 택시 내려 두리번거리는데 길 건너편 어딘가에 몸 반쯤 숨겨 서 있는 윤 보이자,

“오빠!! 윤이 오빠!!” 하며, 손 흔들며 눈에 띄는 것 없이 차로로 뛰어드는. 빵! 빗겨가는 차.

그 모습 위협하고.. 건너편 일각에서 놀란 윤이 튀어나온다.

메아리 (그저 반가워서) 오빠! 나 여기! 오빠! (하며 차도 막 건너려고 하는)

최윤 (놀라) 야, 임매알! 너 뭐해! 거기 못서!

메아리 싫어! 오빠 그냥 갈 꺼잖아!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갈게요!

메아리, 차들 없는 틈 타 이미 차로로 뛰어들었고! 그때 달려오던 차에 치일 뻔! 빵!!

최윤 (헉!! ) 야, 이 자식아!! (하며 오지 말라고 손뻐어 표시하며 좌우 살피며 도로로 마구 뛰어들며) 위험하다! 거기 있어! 그냥 거기 있어! 내가 가! 내가 그쪽으로 갈게!

-드라마 <신사의 품격> 10회 대본

인용한 두 장면이 연결되면서 신경숙의 장편소설은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는 최윤이 메아리의 전화를 바라보며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비롯하여, 메아리의 열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녀를 걱정하면서도 거부하는 최윤의 감정까지를 압축해낸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캐릭터의 행동이나 독백, 대화를 활용한 ‘일반적’인 방식의 전달이 아니라 책과 소재목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의 감정과 이후의 행보를 유추하게 한다. 이는 문학 텍스트와 ‘책’이라는 소품이 지닌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드라마의 무게감을 더할 뿐만 아니라, 책의 제목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유추하게 하여 퍼즐을 맞추는 듯한 재미까지 더한다.

특히 <신사의 품격>에서는 다양한 소설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책들은 캐릭터의 특성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내면 풍경과 그 생각의 변화를 짐작하게 하는 장치로도 활용된다.

예컨대 이수가 가르치는 학교의 문제 학생으로 등장하는 동협(김우빈 분)에게 이수가 내리는 별은 ‘필사’인데, 필사의 대상으로 주어지는 소설들은 동협의 성격과 그 감정의 변화를 암시한다. 동협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숙제는 김훈의 장편소설 『칼의 노래』를 필사하는 것이었으나, 동협은 이를 같은 반 친구에게 떠맡긴다. 이를 알아챈 이수가 두 번째로 내준 숙제의 대상은 김연수의 소설 『윈더보이』다. 이번에는 동협은 이 소설을 직접 필사한

다. 동협의 필사와 함께 그가 점차 이수에게 마음을 여는 서사 및 에피소드가 함께 전개된다. 즉, 동협에게 주어진 두 권의 책은 그의 내면이 거칠고 날이 서 있던 고독한 『칼의 노래』에서 『윈더보이』로의 이행을 겪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학과 드라마의 통섭은 기실 상업적 관계에 의해 촉발된 것이기도 하다. 이 드라마에서는 문학 동네의 출간 서적들이 다수 노출되었는데, 출판사 문학동네는 이후 이 드라마에 노출되었던 텍스트들을 모아 모두 다섯 권의 『신사의 품격 추천도서 컬렉션』을 엮어 내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드라마의 인기에 부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비평이다. 이 또한 문학 텍스트와 드라마 텍스트의 혼용이 만들어낸 문화적 현상이며,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문화 콘텐츠가 건네는 위로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상 미디어에만 집중될 수 있는 일반의 관심을 문자 미디어의 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 장르간의 통섭 가능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은 ‘문학성’이라는 틀로 인하여 소원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혼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참신한 드라마의 문법을 제시하려 하였던 것이다.

### III. 결 론

본 연구는 문학이 드라마와 어떻게 혼용하며 통섭하는가에 대한 탐색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은숙의 두 편의 드라마 <도깨비>와 <신사의 품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두 텍스트는 대중적으로 높은 관심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김은숙의 드라마에서 시와 문학은 드라마 속 캐릭터를 드러내는 한 장치이자, 그 감정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도깨비>에서는 김인욱 시인의 시 「사랑의 물리학」을 통해 중심인물 ‘도깨비’의 감정 변화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그가 자신의 감정과 운명을 동시에 깨닫는 이 찰나 색이 바뀌는 횡단보도나 은탁의 얼굴을 슬로우 모션으로 잡아냄으로써 환상적으로 그려낸다. 이 순간에 캐릭터의 직접적인 감정 토로가 아닌 시 「사랑의 물리학」을 겹쳐냄으로써 감성적이고도 한층 더 세련

된 이미지와 장면 연출을 이끌어낸다. 시와 영상이 결합된 이 씬은 이 드라마의 백미로 꼽히며, 캐릭터의 관계를 비롯하여 주인공 '도깨비'의 과거사와 감정을 슬프고도 환상적인 장면으로 표현해낸다. 두 주인공의 사랑의 행방이 애뜻하게 그려짐을 감안한다면, 이 씬은 드라마 <도깨비>의 개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요한 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3년 작인 <신사의 품격>에서는 시의 한 구절이나 전문(全文)이 아니라, '책' 자체를 활용하고 있다. 신경숙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는 최윤과 메아리라는 두 중심인물의 행보와 감정 변화를 예기케 한다. 특히 소재목을 활용함으로써 이후, 최윤이 메아리에게 '내가 같게'라고 외치는 장면은 두 사람의 결합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는 책 그 자체를 비추으로써 현실의 책을 드라마 속으로 녹여내고, 드라마 속의 인물들을 현실의 인물들인 것처럼 만드는 꾀진한 효과를 얻어낸다.

이처럼 김은숙의 드라마에서 시와 문학 텍스트, 그리고 책은 드라마 속 인물들의 감정을 간접적이지만, 더욱 극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또한 이후 서사의 전개를 암시하며 드라마 전체의 분위기를 구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은숙의 드라마 <도깨비>와 <신사의 품격>은 시와 드라마, 문학과 드라마의 혼용이라는, 서로 다른 미디어 매체 간 소통의 흥미로운 한 예라 할 수 있다. 영상과 문자 텍스트의 통섭은 이른바 '김은숙 드라마'의 특성이자 개성이 되었으며, 또한 참신성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두 편의 드라마는 2010년대 한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다양다종한 장르들의 통섭, 융합의 양상을 살피게 하는 주요한 텍스트이다. 이 드라마들의 시도는 서로 다른 미디어들이 혼용하며 만들어내는 복잡하고도 낭만적인 영상과 이를 소비하는 문화적 현상들을 직조해 내었던 것이다.

## References

[1] Hwang Byeong-hong&Lee Myeong-hyeon, A study on Character of <Doggabi:The Lonely and Great God>, Culture and Convergence, 2017.  
[2] Kim, Soo-young, Power of Story in Drama Character of The Lonely and Splendid God-Goblin, Story&Image Telling, 2017.

[3] Kim, Hye-jung, Narrative Order and Logic in Korean Wave Drama - <The Inheritors>, <Descendants of the sun>, <Goblin: The Lonely and Great God> by Kim Eun-Sook, Journal of Korean Culture, 2017.  
[4] Lee, Myeoung-hyun, The Convergence Imagination and Fantasy of <Doggabi: The Lonely and Great God> -with a focus on Its doggabi Character, Literature and Video, 2017.  
[5] Park Jai-in, The Relevance of the TV Series "Guardian" to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and the Meaning of its Storytelling, Humanities, 2017.  
[6] Kim, Ji-hye, A Study on the Fantasy in Storytelling of Kim Eun-Suk's Drama-Focusing on The Lovers in Paris (2004), Secret Garden (2010), The Inheritors (2013), Literature and Video, 2014  
[7] Sin, Won-seon, The eight painful reality and fantasy embodied in drama <Bugaboo(Deogeobi)>, Korean Studies, 2018.  
[8] Youm, Won-hee,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Pattern of Traditional Culture Reproduced in The TV drama <Dokkaebi>, Humanities contents, 2018.  
[9] Choi, Hye-kyung, Literary Value of TV drama as Video Literature : Focusing on <Goblin(Dokebi)- The Lonely and Great God>, Global Culture Contents, 2018.  
[10] Park, Noh-hyun, 'Overwriting' & 'Citation', Intertextual Storytelling-Focusing on <Secret garden> and <A Gentleman's Dignity>, Sanghur Hakbo-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2013.  
[11] Choi, Sung-youll, A Study on Aristotle's 'Poet' and Kant's 'Aesthetic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16.  
[12] Kim, In-yuk, The Physics of Love, Munhaksegyesa, 2016.  
[13] Kim, In-yuk, Good bye- Fox, Munhaksegyesa, 2012.  
[14] Kim, Yong-taek, Maybe the stars will take your sorrow, Yedam, 2016.

※ 이 논문은 광운대학교 2018학년도 교내 학술연구비로 지원되었음.